



Market Index <29일>		4판
코스피지수	2457.25	↓ -21.71
코스닥지수	870.08	↓ -9.61
국고채금리 (3년물, 연%)	2.189	↓ -0.019
환율 (원·달러)	1076.80	↑ +2.60
원/100엔당	989.02	
원/100유로	1249.80	
일본 닛케이	22,358.43 (-122.66)	
WTI(유가)	67.88달러(휴장)	

# 한국경제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hankyung.com

제17166호 | 대표전화 02) 360-4114

NH농협계사들게 NH투자증권

(前 프랑스 총리)

## 비용 “4차 산업혁명이 대체투자 판도 바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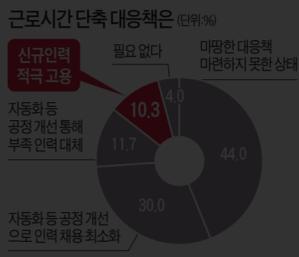
25개국 투자전문가 750명 참석 국내 최대 대체투자 포럼인 'ASK 2018 글로벌 사모-헤지펀드-멀티에셋 투자 서밋'이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세계 25개국 투자전문가 7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를 일정으로 개막했다.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 ‘週52시간’ 대응 어떻게 ... 300社 긴급설문 기업 10곳 중 9곳 “추가 채용 안한다”

일자리 18만개 늘 거라는  
정부 전망과는 큰 괴리

국내 기업 10곳 중 9곳가량은 오는 7월1일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들더라도 일자리를 늘리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 두 곳 중 한 곳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원들의 실질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근로제가 정착하면 14만~18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가 기업 현장 분위기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A6면  
한국경제신문이 29일 마켓비전컨설팅 그룹에 의뢰해 ‘주 52시간근로제 시행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 상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300곳 가운데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 기업은 10.3%(31곳)에 그쳤다. 125개(41.7%) 기업은 ‘자동화 등 공정 개선으로 신규 인력 채용을 최소화하거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겠다’



고 답했다. 144곳(48%)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대책이 필요 없다”고 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I.G 등 국내 4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근로시간이 단축돼도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현재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면서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7월부터 사무직과 연구개발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관련기사 A3면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장관들이 모두 소집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명칭은 기계소득 등 자동화 점진화이지만 실제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된 자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소득 하위 20%의 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

## 소득주도성장 효과 놓고 靑 ‘150분 격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련기사 A3면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장관들이 모두 소집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명칭은 기계소득 등 자동화 점진화이지만 실제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된 자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소득 하위 20%의 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

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150분간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소득 양극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 고용부  
文대통령, 경제팀 긴급 소집 靑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위계층 소득 줄었을 수도”  
진의 원인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한 참석자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당초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분배와 소득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된 원인을  
논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ASK 2018 ▶A4, 5면

### 국내 최대 대체투자 포럼 개막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없습니다. 금융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프랑스수아피옹 전 프랑스 총리)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대체투자 영역에도 불어닥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막한 ‘ASK 2018 사모-헤지펀드-멀티에셋 투자서밋’에 참가한 글로벌 대체투자 전문가들은 “투자자 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지 않고는 탁월한 성과를 내기 힘들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피오넬 총리(티캐하우캐피탈 파트너)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틱스 등은 기존 질서와 전통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 대체투자 분야에도 혁명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3대 헤지펀드 운용사 맨그룹의 루크 엘리스 사장은 “하루에도 수억 개씩 쏟아지는 시장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술로 가공하면 기존보다 훨씬 많은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을 투자에 활용하면 펀드매니저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걸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통제착각’ 등 투자 행동의 오류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화하는 시장에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찾는다는 주제에 이를만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 25개국에서 7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글로벌 투자 흐름을 진단한다. 유창재 기자 yoochool@hankyung.com

## 트럼프 “北 김정은, 뉴욕으로 오고 있다”

美·北 ‘비핵화 큰 틀’ 합의한 듯  
‘김정은 친서’ 전달할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지금 뉴욕으로 오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8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훌륭한 팀을 구성했고 현재 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양측의 미팅이 진행되고 있다”고 썼다. 이어 “내 서한에 대한 확실한 반응이다. 고맙다”고 언급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은 이날 오전 10시에 고려항공 JS151편을 타고 베이징 서우퉁공항에 도착했으며, 30일 오후 10시35분 베이징발 중국 국제항공 CA989편을 이용해 뉴욕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에서는 대미외교 담당인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도 목격됐다. 김정은은 미국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어서 미국과 북한이 큰 틀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룬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유엔본부의 북한 외교관들이 미국에서 뉴욕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의 방미는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북한 최고위급 인사로는 18년 만이다.  
베이징=강동근 특파원/정인설 기자 kdj@hankyung.com

## 美, 내달 ‘25% 관세’ 中 수입품 목록 공개한다

양국 통상전쟁 재점화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달 15일까지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중국 수입품 목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미 정부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5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이 타격을 받는다.

미 백악관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고율 관세를 매길 중국 수입품 목록을 예정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기술(IT) 제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중국이 맞대응식 관세 보복을

보류키로 한 것과는 다른 움직임이어서 통상전쟁이 다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월버로스 미상무장관이 다음달 2-4일 마·중 간 3차 통상 협상을 위해 중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도 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AUTO ▶B1-8면 다시 뛰는 수도권 ▶C1-8면 구독신청 (전국) 1577-5454

# 경 남이섬 월드 폴 빌리지 OPEN기념 특별 2개동 선착순 분양

계약과 동시에 익월 수익발생(월 120~150만원)

1가구  
다주택  
해당없음

년 7% 수익  
바로발생

연간 30일  
무료숙박

실투자금  
1억 초반대

매월  
140만원 지급

실제 내·외부 전경사진입니다

실제 내·외부 전경사진입니다

실제 내·외부 전경사진입니다

- 시행사가 직접 시행 & 운영
- 북한강·남이섬·자라섬·청평호 인접
- 분양계약과 동시에 연 7% 임대료 계약 체결

- 원가절감된 할리우드 분양가
- 호명산, 연안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
- 단지내 대형 야외수영장, 매점 등 편의시설 완비

각 세대별 실내 수영장·야외수영장·히노키·테라스가 있는 2층 풀빌라

분양문의 02)542-2921